

1. 머리말

필자는 중학생 시절인 1955년 봄에 아까시나무 묘포를 만들었고, 1956년에 3,000주를 심고 난 여름부터는 꿀벌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도 3,000분을 더 심었으니 결국 꿀벌을 기르기 전에 밀원조성을 먼저 한 편이다.

필자의 고향에서는 1957~58년 봄철 두해 동안에 100여명의 인부들이 10여일 동안 대규모의 아까시나무 사방조림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필자의 꿀벌 전사지(이동지)인 경기도 화성군도 마찬가지로 1956년에 대규모 사방조림을 실시했는데 지금 와서 이에 관한 삼림통계 등 그 기록을 찾지 못했다.

본고는 1950년대의 공식적 자료를 접수하지 못하고 1960년대 이후의 통계(註: 박용구: '우리나라 아까시나무의 자원화에 대한 전망' 『한국양봉학학회지』 제11권1호 31쪽)만을 접하고 있는 관계로, 당시 사실 활동을 기술하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다른 분들의 훌륭한 구명과 학술 활동으로 더 밝혀졌으면 한다.

또한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아까시나무 조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Dexta N. Rutz 박사'에 관하여 먼저 소개하여 한국의 아까시아꿀의 자존심의 근원을 알리고자 하며, 내 소년 시절의 아까시나무 조림에 관한 회고와 1970년대 초 소재 이용의 한 예를 기술하려 한다.

2. 한국 아까시나무 조림의 아버지 유소(柳韶) 박사

1) 유소, 그는 어떤 분인가?

① 생년월일: 1890년 8월 24일 (註: 『경북대학보』 1961년 4월3일 1면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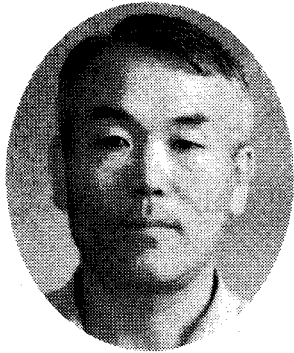
② 본 명: Dexta N. Rutz

③ 한국 명: 루소(한자 표기는 柳韶)

④ 신 분: 미국 북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한 농업 선교사로서 1929년에 『농민생활』誌를 창간함(註: 『농민생활』誌 1954년 6월호 (제16권 1호) 6쪽. 본지는 1929년 창간 후 1943년 일제 탄압으로 정간됐다 1954년 6월 속간호 발간했다. 발행소: 서울시 종로구 중

양봉인이 체험한

50년대 아까시나무 조림사례



최대봉 유밀농원봉독산업(주)대표

로2가 91번지 기독교도서관건물 4층 농민생활사, 발행인: 柳韶, 주간: 李長春 장로, 편집장: 李澤龍, 1부 50환, 허가번호: 328호)

⑤ 내한·채류기간: 『농민생활』誌 1954년 6월호 6쪽에서 그는 "30여년 전에 한국에 와서"라고 기록된 바에 의하면 1920년대 초에 내한했다.

⑥ 귀 환: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2차대전 중이던 때 미국인 선교사가 발행하던 『농민생활』誌는 강제 정간되고 그는 강제 출국 당했다.

⑦ 재 파 송: 1953년 7월 하순 한국전쟁이 휴전되자 한국에 재입국, 농업 선교사의 일과 U.S.O.M(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미국 대외원조기관)의 농사고문 일을 했다.

⑧ 한국을 떠난 해: 1961년 만 70세가 지나게 되어 정년으로 떠났다.

⑨ 학위 수여: 경북대학교에서는 1961년 3월 그의 한국 농업과 사회에 봉사 기여했음을 기려 명예농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註: 『경북대학보』 1961년 4월3일 1면기사)

⑩ 학위 수여의 공적: "한국에서 40년간 『농민생활』잡지와 10여권의 저서로 우리나라 농업의 후진성을 계몽해 온 바"라고 기록되었다.

⑪ 그의 일터 기독교연합봉사회: 1949년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 다섯의 큰 선교회가 힘을 합해 일하기로 발족하였다.(당시 대전시 삼성동 387번지)

△ "예수그리스도의 교훈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지로 보여주자"

△ 이러한 봉사사업에 지도자가 될 남녀 기독교 신자를 훈련시키는 데 있다. 사업장소로 충남 대덕군 회덕면 중리에 임야 25ha, 전담

15ha를 마련하여 실험장과 축산 등을 착수하던 차 6·25동란으로 중단된 후 1951년부터 다시 출발했다.

-전상자들을 위한 의수족 제공과 직업 보도(토리) 박사 주관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독교 농민학원 운영(한국 재건단 원조)

-1953년부터 유밀(乳蜜)한국 건설을 위한 가축 대부 사업과 종축장 운영

⑫ 그의 일터: U.S.O.M과 『농민생활』잡지의 지면

△ 그는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U.S.O.M의 농사 고문이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극 권고하여 "남한의 황폐한 임야에 아까시나무 사방조림"을 밀어붙여 1950~1953년의 전쟁 후 1955년~1960년 기간에 식목한 아까시나무가 오늘 한국의 아까시아꿀의 모태가 되었다.

△ 그는 『농민생활』誌 사장으로 매월 발행되는 글을 실는 과정에

- "보릿고개를 잘 넘기려면 감자와 완두를 많이 재배하십시오"

- "아까시나무를 많이 심어 토양 유실을 막고, 연료림으로 제공되고, 잎과 새 가지는 비료(녹비)로 쓰이며, 잎과 잎자루는 가축의

푸른 먹이로 제공해 젓과 알과 고기와 탈가죽을 얻고, 꿀을 얻는 훌륭한 밀원이 되고 토양에 질소 성분을 고정해 준다."

이상과 같은 외침이 필자의 마음을 움직여 어린 나이에 조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또한 필자는 『농민생활』지면의 기독교인 기고자들의 글을 읽는 과정에 기독교에 귀의해 40년이 지난 1994년에는 교회의 장로 임직을 받아 교회에 봉사하게 되었다.

3. 필자의 아까시나무 조림기

1) 채 종

1954년 6월 속간된 『농민생활』誌를 읽으며 의욕을 갖고 일제때 조림된(註: 전남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생골 서북편 300m 지점의 남향 산록) 나무들에서 그해 가을-겨울에 걸쳐 씨앗을 한습 정도(6,500粒) 거두었다.

2) 육 묘

-파종장소: 전남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614번지. 필자의 고향집 뒷밭

-파종시기: 1955년 2월 1습 1956년 2월 1습

-파종상: 유기질(humus)이 풍부한 식양토(殖壤土)였고 2m 옆 울타리에 1952년에 심은 아까시나무 두그루가 있어 묘상엔 근류근 접촉 분포가 잘 된 곳임.

-파종방법: 줄뿌림 45cm 간격

-파종량: 6,500 낱알(약 1습)을 15평에 뿌림

-발아촉진: 묽은 황산 처리를 하려다 취소하고 또 뜨거운 물에 담그는 방법을 택하려니 초단위 시간 측정상 포기하고 씨앗의 5배량의 굵은 모래와 섞어 절구로 찧어 표피에 상처를 낸 다음 뿌렸다.

3) 조림 방법 및 면적

1956년 2-3월 가슴높이 둘레 12mm X 키 150~180cm인 육자란 묘목을 3,000주 캐내어 화강암 황적성

토양(註: 『전라남도 토성조사보고서(ChollaNam Do Soil Survey Report)』)인 자가산 2.5ha에 2,000주를 심고 나머지 1,000주는 타인의 산에 몰래 심었다.

△1956년의 묘포설치는 텃밭이 비옥해 산밭의 지력이 덜한 밭에 15평을 설치해 6,500 낱알을 파 1957년에 2.5ha의 자가산에 2,000주, 인근 타인산에 몰래 1,000주를 또 심었다.(자가산 조림에 4,000주를 5ha에 심었다)

4) 조림 후의 문제점

① 1956년에 관찰한 결과는 타인의 산에 심은 묘목은 아주 충실한데, 자가산에 심은 묘목은 키 크고 충실하면서도 새 가지(2년차)들이 5-15cm 정도로 움트다 정지했음에 놀랐다.

이는 타인의 산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싫어하여 모조리 낫으로 잘라 버렸으니 지하부위는 2년차인데 지상 부위는 1년차(註: 『조림식적』- 임경빈 지음, 부민문화사) (1/2묘목이라 칭하자)였으므로 잘 자란 것이고, 자가산에 심은 묘목은 지상 부위는 한길 정도로 크지만 지하부위는 이식 과정의 절단 상처로 지상과 지하 부위의 균형이 안 맞아 기초가 부실한 결과였다.

그런데 두 번째 해인 1957년에 박토에서 캐내어 옮긴 묘목은 지상부를 자르지 않았으나 성장이 한 해 전의 큰 묘목보다 2-3년 후의 성장이 좋았다.

② 성장 순위 관찰: 1위는 타인 산에 몰래 심어 낫으로 지면 바로 위를 산주가 잘라 버려 불운했던 묘목이 제일 충실했고, 2위는 둘째 해에 생산된 척박한 묘포장에서 자란 묘목이었고, 3위는 텃밭 묘포장의 한 길이나 크게 자란 묘목이었다.

이에 느낀 결론은 옮겨 심을 때 지상 부위를 3cm 정도 남기고 잘라 심으면 지하 부위는 2년생, 지상 부위는 1년생을 만들어 심어야 함을 뒤늦게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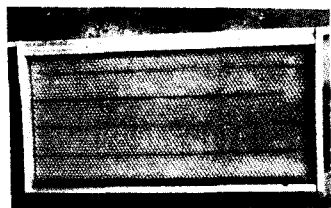
5) 조림 후의 이용

① 필자가 초등학교 2년 시절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육용종 토끼가 피 많은 수효로 불어나 아까시나무 잎을 사료로 쓰였다.

② 1960년대에는 양고라토끼의 월동사료와 젓소의 사료로 쓰였다. (8면에 계속)

양봉기자재 전문판매

- 소상(10매무창) 27,000원
- 소상(12매무창) 30,000원
- 계상(10매용) 15,000원
- 격리판 1,600원
- 광식사양기 2,500원
- 소광 1,400원
- 소초광 2,500원
- 채유광 1,500원



저희 제품은 밀양양봉원 소초만을 사용합니다.

정화양봉원 ☎ (0652)211-4772 74-3263

☎ 560-20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9-2. 한. 장. 회. 온라인 · 농협중앙회 524-02-006341 · 우체국 401901-0083012

첨단기술의 밀양양봉원 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웅봉저소초와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양양봉원

☎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